



Floating Reality Documents

부유/현실기록

오원배 Oh Wonbae



Floating Reality Documents

부유/현실기록

오원배 Oh Wonbae

부유/현실/기록
Floating/Reality/Documents

2023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오원배 개인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2023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는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전시 제도로서 지난 5월 오원배를 그 첫 번째 작가로 선정하였다. 인천 연고의 작가들 중에 선정된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에게는 예술창작을 지원하며 동시대의 시각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천미술의 현재를 가늠해 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심사는 지난날의 공로나 업적의 평가가 아닌 현재의 예술성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았고 심의위원회는 ‘변화는 형식의 차용이 아닌 치열한 자기 극복’임을 자신의 예술의 태도로 견지하는 오원배를 선정하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

오원배

오원배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일관된 작업의 주제로 하여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몸’을 통한 발언이다. 그의 대학 시절인 1970년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 체제와 산업화, 도시의 빈민층 문제, 사회의 부조리 등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실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군 복무 후 인간 형상에 대한 표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익명성을 드러내는 탈을 쓴 인간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반인반수의 형상과 역동적인 저항의 몸으로, 획일적이고 기계화된 군중의 몸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다양한 몸의 형상을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작가는 “예술은 살아있는 생물”이며, “예술은 현실과 부딪치고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는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작업에 천착해왔다.

부유/현실/기록

오원배 작품의 제목은 모두 ‘무제’이다. 현실 속에 부유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맺고, 이를 예술적 사유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들은 결코 한 단어나 문장으로 귀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부유/현실/기록»은 이러한 현실과 관계 맺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은유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공간을 그의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장엄한 무대 같은 서사적 풍경을 연출한다. 전시장 1층에 들어서면 네 개의 벽면을 에워싸는 대형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오늘의 일상적 현상인 대립된 진영의 구호가 크레인에 매달려있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는 이념에 경도

되어 다양성이 무시되는 현실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기술적 발전으로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합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기도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존엄성을 위협받는 인간, 덧없는 욕망을 쫓거나 현실의 깊은 구렁이를 피하기 위해,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 사이를 살얼음판 걷듯 나아가는 현실의 힘겨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의 몸짓들은 외부 현실로 인식되는 4점의 대형 작품 사이에 존재하며, 걱정적이고 역동적인 몸으로 표현된다.

2층 전시장에는 작가가 '사유와 상상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와 기록'이라고 정의하는 드로잉 작품들이 펼쳐진다. 작가는 드로잉을 수시로 일어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표현 욕구와 변화를 방법적으로 모색하고 양식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작가의 거칠고 강한 표현적 경향에서부터 감성에 의존하는 감각적, 추상적, 기하학적, 재현적 표현과 재료의 속성과 효과를 이용한 다양한 드로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오원배의 드로잉은 넓고 거친, 한없이 아름답지만 걱정의 파도를 감춘 바다의 모습과 닮아있다.

2층 전시장 한편에는 1970년대의 청관(인천차이나타운을 부르던 옛이름)의 주변 풍경을 그린 드로잉들과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분류한 스케치북에 담은 드로잉들이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된다. 매립되기 이전의 항구와 옛 건물들, 지금은 문을 닫은 당시의 고급 호텔과 정박해있는 어선들의 모습은 잊고 있던 따듯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향수를 자극한다. 이제는 표지석만이 남아 소문처럼 떠도는 낙섬과 예전 청관으로 함께 불리던 장소인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바다의 풍경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오원배의 오래된 드로잉들은 역사적 기록이 되어 여전히 비릿한 냄새와 함께 열은 기억을 선연히 불러들이고 있다.

뜨거운 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8년 코소보 분쟁 2001년 9.11 테러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2023년 현재는 국가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과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 중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와 사회의 체제, 종교, 정치, 인종 간 이념의 대립과 전체주의적 경향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비극적 갈등의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문명의 발전이 수반하는 재난과 전염병, 안전사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생활화는 우리에게 인간의 근원적 가치와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오늘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이야기들은 작가의 변함없는 작업 주제이며, 현실을 거니는 오원배의 예술적 행보는 여전히 뜨거운 몸으로 진행 중이다.

Floating/Reality/Documents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of The Year in Incheon

The Exhibition project 'The Artist of the Year 2023 in Incheon', run by Incheon Cultural Foundation-Incheon Art Platform in collaboration, elected Oh Wonbae as the first awardee in May. The Artist of the Year elected from among Incheon-native artists will be financially supported for his/her artistic creation and their oeuvre will on display in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artist's artistic world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The Exhibition aims at seeking a future trajectory of as well as the present status of Incheon art.

The prime touchstone of evaluation was less the deed and the accomplishment of the past than the present artistic tour de force; the committee were unanimous in electing Oh Wonbae as the awardee, who has maintained his artistic attitude characterized by the dictum, 'Change is not an appropriation of form but a wholehearted process of self-overcoming'.

Oh Wonbae

Oh Wonbae has been consistently preoccupied with the existentialist theme of the predicament of human existence which he artistically articulated through human body. The age of his college days in the 1970's was overshadowed by the dark reality ranging from the oppression of individual freedom under the regime of Yusin despotism and industrialization, the social evils of urban poverty to social absurdities. Against the backdrop of dark social reality, his existentialist awakening was instigated and the artistic rendering of human form was substantially launched after his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Starting from human forms with masks of human anonymity, Oh created therianthropes(a half-human, half-beast hybrid) incarnating human violence, the bodies of dynamic resistance and the bodies of the mass standardized and mechanized. His artistic cre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of human forms is still an ongoing process in variance with the change of the age.

Thus, it is no wonder that his whole oeuvre are imbued with his philosophy of "Art is an organisme vivant" or "Art is something that confronts, responds to the reality and incessantly changes".

Floating/Reality/Documents

All the titles of Oh Wonbae's painting works are "Untitled", since making a relationship with a legion of existences floating in real life and the process of recording them by virtue of artistic meditation cannot end up with a specific word or a single sentence.

The main title of this exhibition «Floating/Reality/Documents» is a good metaphor for the painter's artistic attitude toward the relationship with real life.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 incorporates the exhibition space into his artistic works thereby performing an epic landscape like a majestic stage. On the first floor, the spectator is confronted with a mega-size piece surrounding the four-walls. Clamoring catch phrases from the oppositional camps, familiar sights visible in our ordinary life, is reverberating via a large speaker attached to a crane. This is a trenchant symbol of the reality where rigid ideology suffocates diversity. These days, despite the brilliant accomplishment made by virtue of material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our society, we are undergoing an extreme state of confusion beyond rational solution.

His oeuvre poignantly testifies to humans whose dignity is threatened by the appearance of robots and AI's and to the hardship of real life where you seek a transient dream or are forced to tread on a thin ice of innovated systems and institutions covering a deep hole. However, the gestures of hope to free from those frustrations and agonies are incarnated in the four mega-size pieces representing the external reality as well as the bodies rendered as impassioned and dynamic.

On the second floor, drawing pieces are on display defined by the artist himself as "all kinds of action and recording that stimulate thought and imagination". The artist utilizes the technique of drawing as a means of methodologically seeking and stylizing the occasional desire to express new motifs. You can ascertain a variety of drawings ranging from rough and strongly expressive tendency to sensitive, abstract, geometrical and representational expression resorting to the attribute and effect of materials.

Oh Wonbae's drawings resemble a wide, rough yet amazingly beautiful ocean whose angry waves are hid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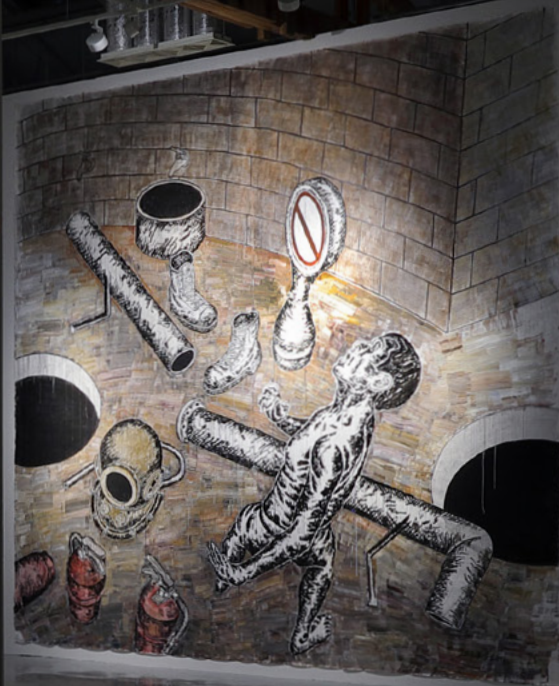
In the corner of the second floor, on display in the form of archives are the drawings depicting the landscape neighboring CheongGwan (an old name of Incheon Chinatown) of 1970's and those drawings in the sketchbook classified 70's, 80's, 90's and 2000's. These reminiscent drawings evoking homesick and warm-hearted memory consist of the old port and buildings before reclaiming work, luxurious hotels now closed, fishing boats anchored, The landscape of the sea is forever gone and invisible from Nakseom Island now floating only in rumor except for the landmark stone and from Incheon Art Platform located at the site of old CheongGwan. However, Oh Wonbae's old drawings as historical documents vividly recalls a dim memory still redolent of sea breeze and fish smell.

The Body inflamed with passion

Berlin Wall crumbled down in 1989, Numerous wars and global conflicts broke out since: 9.11 Terrorist Attacking in 2001, Kosovo Conflict in 1998 and via Covid-19 Pandemic in 2019 to Ukranian-Russian War. The tension on the verge of war engagement among nations is on the rise and actual battles small and big (including the War in Gaza Strip) are currently being fought in 2023.

The despotic tendency as well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nations, different social institutions, religions, political systems, races and ideologies is now escalating to tragic conflicts irrespective of individual will. Catastrophe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I's threatening human dignity cast us humans vital questions about the trajectory of human values and significance.

The sophisticated narratives of human relationship encountered in ordinary life constitute an eternal subject -matter for the artist in his creative process and Oh Wonbae's artistic pilgrimage is an ongoing process with a body inflamed with passion.







“저 높은 이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삶은
사악한 질병과 같고 세상은 정신 병원과 흡사하구나.” - 괴테 -

세상, 비웃으며 떠날 수는 없는 싸움터

지난 세기 후반부터 온갖 포스트 담론들의 마사지가 본격화되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역설적인 전략화, 취향화가 대거 투여되었다. 예술의 활주로에 들어서는 것은 그런 시대정신(?)을 강박적으로 뒤쫓는 것을 의미했다. 효과음을 제대로 내기, 뿌리와 진실에 관한 질문은 개의치 않아도 되었다. 정연하게 주어지는 글로벌 매뉴얼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를 위한 전략과 강령은 이러하다: 첨단기술, 디지털 리터러시적 인상을 제공할 것, 예술과 인공지능의 콜라보 붐 편승하기, 문화적 포화의 시대의 유행을 타는 것에 유의할 것, 이를테면 반(反) 대중적 표제어를 내세우되 실제로는 대중적인 것을 차용할 것. 모호하고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담론을 많이 불편해하지 않기, 저항적 아로마테라피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지나친 시니시즘(cynicism)인가? 가혹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토대가 무너져내리는 중이다. 취향 마사지와 심리적 전략과 미학적 효과음들..., 차라리 환타지나 환상이 좋으리라. 하지만 덧없는 퇴로다. 오원배는 그런 우회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환상을 버려. 그래야 삶은 겨우 견딜만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오원배의 회화는 어떤 세상을 읽는가? 2023년의 세상에서 오원배의 눈은 여전히 부당한 해고에 맞섰던 한 여공의 죽음을 본다. 그 죽음을 추락사로 위장, 발표했던 1979년의 거짓을 본다. 오원배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 인간이라는 괴물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죠.”¹ 2023년의 세상은? 동일한 거짓의 주변을 더 맹렬히 맴돈다. 진화인가? 퇴행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회화는 환타지, 기분전환, 놀이공원, 취향저격용 유희적 뉘앙스와는 여전히 거리가 둔다. 여전히 인간과 사회의 어두운 진실에 다가서는 중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거짓의 원년인 1979년, 오원배는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레싱에게 세상은 ‘비웃으며 떠날 수는 없는 싸움터’였다. 오원배도 다르지 않았다. 오원배의 싸움은 대학에서 학습한 모던 아트의 신화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기제들, 교양미 넘치는 ‘미적 안목’이니 ‘미적 판단’이니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재탐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서구 근대미학이 드리운 어두움, 백인-교양인 대 유색인-야만인, 영웅-천재 대 시민-군중, 유토피아 대 일상, 미술관 대 거리의 대립이 생성하고 강화해 온 뿌리 깊은

분열을 의심하는 것에서, 미술관 미술(museum art)의 엘리트주의와 개념적 분위기에 가담하는 미술계의 덧없는 관습을 몸에 익히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에서 스스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 다음은 예술의 이름에 더 값하는 것을 찾아 나서기다. 거짓의 세상을 보는 눈을 토대로 하는 회화, 그리고 의지를 다해 마지막까지 싸움터를 떠나지 않는 신의(信義)의 태도다. 오늘날까지 오원배가 고집스러운 일관성으로 꼭 붙잡고 놓지 않는 회화론의 두 지주다. 삶을 바라보는 회화,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진실의 접점을 마지막까지 소거시키지 않는 관계의 미학, 이에서 파생된 회화성은 생래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한 고발이나 적대주의적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 회화론의 비판성에는 온기를 지닌 어떤 도덕적인 품위가 있다. 이 회화의 시선에는 그 내부에 자리한 선(善)이 반영되어 있다. ‘반기를 드는 인식’마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그런 선이다. 이 예술의 태도는 선(善)과 결부되어 있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선(善)이며 지혜와 가깝고 사랑과는 더욱 가까운 것이기에, 이 회화는 공명하는 힘이 있다.

회화의, 회화적인 저항

오원배의 그림에는 늘 인간이 있다. 40년 동안 다양한 인간형이 등장해왔다. 부단한 변화가 있었지만, 각각의 차이를 넘어서는 부동의 일관성이 있다. 탈을 쓴 인간, 반인반수적인 존재, 차갑고 경직된 공간에 윤패되거나 비인간적인 도회지를 떠도는 인간, 나팔을 부는 청년, 생의 역동성이 증발된 강직된 신체,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군상... 그들은 모두 억압과 소외, 가책감이나 자기최면 가운데 어느 하나는 들고 나타난다. 까까머리의 소년들, 관악기나 현악기를 연주하는 푸른 영혼의 소유자들은 모두 “지난날의 비겁함과 용기, 그리움, 분단의 통증”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들 모두는 그런 시대를 견뎌야 했던 오원배의 분신이자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춰내는 존재론적 거울이다.

이 인물들이 굳이 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울거나 웃지 않는다. 울부짖거나 절규하지도 않는다. 언어도 불필요하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로 외현되곤 하는 정체성 서사가 굳이 필요할까. 감각과 감정의 과한 분출은 억제된다. 그렇다면 이 무표정, 이 침묵은 무엇인가? 그저 큰 눈을 껌뻑거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사회적 전형에서 이탈한 수수께끼 같은 자세를 취한다. ‘랭귀지’가 거세된 알몸에 세련미를 걷어낸 어눌한 몸짓은 무엇인가? 위반이나 저항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것, 즉 정보의 미달 상태, 저항에 못 미치는 자체가 저항이다. 데이터를 최소화함으로써 비트(bit)로 이루어진 전기 신호로의 전환을 교란하는 저항, 즉 스스로 정보화되기에 부적절한 상태로 머무는 것으로서의 저항이다. 이것을 ‘회화의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묘사와 재현의 회화적인 재배치 안에서 아날로그적 현존을 꼭 붙잡는 것으로서 디지털화에 대한 저항으로. 회화는 살아있음을 가까스로 납득시키는 최소한의 필연적인 현현에 적합한 매체라고 하면 어떨까. 큰 모험 없는 소소한 실존으로서의 현현에 적합한 매체로서 회화, 이로서 보는 이들의 운명과 함께 공명하는 회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관계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폭로나 누설로는 불가능한 연대로 나아가는 회화!

괴테적 부감과 낮은 시점에서 올려보기

어떤 세상을 보는가만큼이나 어떤 위치에서 보는가도 중요하다. 오원배는 종종 ‘괴테의 부감’으로 부르는, 저 높은 이성에서 저 아래의 세상을 깎아내린 듯한 각도로 내려다 본다.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세계의 실체, 그것을 구성하는 비루한 것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모든 삶은 사악한 질병과 같고 세상은 정신 병원과 흡사하구나”에 이른다.

작가는 형식을 만드는 작인(作人)이지만, 그 형식은 그가 높은 이성의 소유자가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높은 이성으로 세계를 굽어보는 것이야말로 작가가 보는 방식인 것이다. 예술가의 일은 ‘사악한 질병’ 같은 현실, ‘정신병원과 다를 바 없는 일상’에 먼저 눈뜨고 눈뜨게 하는 일일 것이다.

낮은 위치에서 높은 이상을 올려다보는 것 또한 높은 이성을 요하는 일이다. 낮은 시점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시선을 들어 천정을, 자신의 시선을 가로막고 짓누르는 것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작가만의 특유한 인식적 특성이라고 한다. 이 일에 충실하기 위해 작가는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낮춘다. 토마스 만은 이렇게 말한다.

“반대로 예술가는 자신의 존재에 위엄을 부여하는 일을 극도로 꺼린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은 무엇보다도 예술에 대한 예술가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비웃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예술가는 생각한다. ... 예술가 자신은 엄숙한 얼굴로 명예와 위엄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거칠고 고독한 젊음에 대한 배신감에서 늘 자신을 비웃고 싶어한다.”(토마스 만) 반대로 타인을 비웃는 것은 지적 파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높은 이성으로 세계를 관조하는 일은 큰 내적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고, 이 힘은 스스로를 (심지어 비하하는 수준까지) 낮추는 것에서 온다. 프랑스의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는 이 힘은 존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의 “악으로 흐릿해진 시선”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미덕이라는, 토마스 만의 자전적 고백과 맥을 같이하는 전언이다. 예술은 겸손한 것이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인간 정신의 소산이다. 겸손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세계를 제대로 관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다. 자기를 낮추기, 그것이 예술가의 본령이다.

오원배는 높은 이성을 요하는 두 시점, 급격한 내려다보기(Look down precipitously)와 급격한 올려다보기(Look up precipitously)를 오가며 세상을 읽는다. 괴테적 부감법과 명상적 올려보기 시점을 오가며, 높은 이성과 정신병원 같은 세계, 이상과 실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촘촘하게 번역해낸다.

땅이 정신을 만든다

오원배는 1953년 인천 중구 유동에서 태어나 송도중학교 미술반에서 미술을 시작했다. 그런 그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종심(從心)의 나이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전시의 첫 번째 선정자로서다. 땅이 정신을 만들어낸다고 했던가? 그 정신이 다시 땅을 다질 것이다. 인천미술, 더 나아가 한국미술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작가와와 대화」, 『오원배』, cat. 2017.11.2.-12.23. OCI 미술관 p.10.

Goethean Bird’s-eye View of the World

Prof. Sim, Sang-yong
(Ph.D in History of Fine Arts , SNU)

“A Bird’s Eye-view from high Reason reveals all life as poisonous disease and the world as a madhouse.” – Goethe –

The world, a battle field you can hardly leave with scorn

From the latter part of the last century on, the massaging practices of post-modern and -structuralist discourses have enormously accelerated the process of paradoxically rendering Dionysian elements strategic and tasteful. Thus, entering into the runway of fine arts signifies nothing else but following the Zeitgeist(?) in mad pursuit. In order to make a proper sound effect, you skip the vital question of the root and truth; you are only required to blindly abide by the global manual provided in order. The strategies and ordinances are as follows: to provide cutting-edge technology and the impression of digital literacy, to ride the boom of a collaboration of arts and AI, to be wary about copying the fashion of the age of cultural explosion. For instance, to make most of popular things in reality while advertizing anti-popular key words; to feel less uncomfortable in ambiguously lengthy discourses and to flexibly utilize resistant aromatherapy.

Too far-fetched cynicism? Cruel though it may look, this is the reality. All things fall apart. Tasty massaging, psychological strateging and aesthetic sound effect... fantasy or illusion would be more preferable. Merely meaningless withdrawal. Oh Wonbae is determined to deny the bypassing route; “Abandon the illusion, then your life becomes something barely bearable”. What kind of world does Oh Wonbae’s paintings read? In the world 2023, Oh’s eyes still gaze at a factory woman worker’s death, who challenged and fought unfair discharge and the fraud of 1979 that her death which was camouflaged and publicized as caused by downfall. He reminisces on the incident as follows: “... you cannot but be skeptical about human beings, they are simply monsters”.¹ How about the year 2023? The same fraud is rampant. Is it an evolution or a retrograde. These paintings, thus, keep aloof from fantasy, diversion, amusement parks, playful nuance aimed at taste instigation, since they are on the road to approaching the dark sides of man and society.

In the year 1979, the birth of fraud, Oh Wonbae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fine arts. Artist Oh, like Lessing, couldn't leave the world of battlefield with scorn. His battle was launched from reexamining and anatomizing the myths of modern art and their essential mechanisms learned in college: "aesthetic eyes" and "aesthetic judgment". This task signifies a number of jobs ranging from casting a doubtful eye on the deep-rooted rift, generated and fortified by the darkness of Western modern aesthetics i.e., the confrontation between white-civilized vs colored-savage, hero-genius vs citizen-mass, utopia vs ordinary, museum vs street, to keeping aloof from the transient custom of the society of fine arts, that is, that ideological custom of getting immersed in the conceptual atmosphere of elitism of museum art.

Next lies the journey to seek what deserves the name of fine arts: paintings created by the eyes that see through the fraud of the world and the loyal attitude which binds one to the battlefield until one's last drop of blood is shed. These two principles constitute the two vital columns that support Oh's theory of painting maintained by his sound stubbornness. His principles of painting cannot but be innately critical, since they are characterized by paintings based on, not estranged from real life, i.e., the aesthetics of relationship that does not erase the tangential point until the final moment. This however is remote from cold-hearted accusation or approach based on animosity. Rather, his critical stance exudes warm-hearted and dignified ethics and his paintings naturally reflect inner goodness thereby "resistant consciousness" is transformed into beauty and good. This kind of aesthetic attitude is thus connected with the good, since fine arts are fundamentally linked with the good and wisdom and immensely close to love. Therein arises the empathetic and resonant power of Oh's paintings.

Resistance by Painting and of Painting

Man always stands at the heart of Oh Wonbae's paintings. A variety of human shapes were featured despite continual changes in the meantime; however, there is an immutable and dominant image of alienation, oppression, self-remorse and self-hypnotization: characters in mask, half-animal and half-man monsters, humans in exile to a cold and frigid space or wandering in inhumane urban streets, trumpet-blowing youths, bodies in spasm devoid of life vitality, mass representing collectivism etc. Baldheaded youths and the possessors of blue souls playing wind musical instruments recall the reminiscence of "cowardice and bravery of the past, aspiration and the pain of the Division of motherland". They are Oh's multiple personae who suffered the rough waves of his age as well as the ontological mirrors reflecting the innerlichkeit of ourselves.

These characters naturally do not need facial expressions; they do not cry and smile either. Words are unnecessary too. Are they in need of costume or hair style to externalize their identity narrative? The overflowing of sense and emotion is strictly restrained. What, then, do no expression and the silence signify? Blinking large eyes and looking around, they assume a mystifying posture of being estranged from social norms. What is this awkward posture of a naked body deprived and divested of both language and refined beauty; it is difficult to view this posture as an attitude of transgression and resistance. However, this state, that of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that is incapable of instigating resistance is itself a different kind of resistance. By minimizing data and maximizing the act of deranging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m to bits as electric signals, the resistance manifests itself as that of remaining for itself in the state of information inappropriate for data processing. Well, we may call it "the resistance of paintings". We may understand it as a medium appropriate for an attempt to grasp analogic presence within the pictorial rearrangement of description and representation thereby achieving the resistance to digitalization. Painting may be thus a medium appropriate for minimum and necessary manifestation that manages to persuade the viewer. The art of painting as a medium appropriate for representing ordinary existence devoid of adventure may successfully evoke resonance in the viewer thereby sharing the fate with him/her. The art of painting making a conniving but solidary relation with the viewer free from noisy exposure of secrets.

Goethean bird's eye view and viewing from the bottom

The position of viewing is as important as the nature of world you see. Oh Wonbae sometimes has a bird's eye view, called Goethean viewpoint, on the world from the height of Reason. Only this viewpoint can reveal the reality of the world and abject things that constitute it. Finally the painter reaches the circumstances, "all life is a poisonous disease and the world is a madhouse".

The Artist is a form maker, whose form is justifiable only when the maker possesses a high Reason. To have a Bird's Eye-view with high Reason characterizes a good artist. In other words, the mission of a good artist is to be awakened to the disease of the reality and the madhouse of everyday life.

While to have a Bird's Eye-view requires a high Reason, a low viewpoint amounts to look up to the ceiling and checks what blocks his act of viewing. For Thomas Mann to lower one's viewpoint signifies the author's special character.

Conversely the artist is averse to confer majesty upon his being.
He feels ashamed as artist, since it is a disgraceful attitude toward art.

“Art should not refrain from mocking at itself. ... the artist him/herself, instead of accepting honor and majesty with a grave face, always feel inclined to mock at himself out of the sense of betrayal suffered in his youth of desolate solitude”. On the contrary, mocking at others attests his/her own intellectual bankruptcy. To survey from height of Reason thus requires a big inner energy, which arises only from the power of lowering oneself (including self-humiliation). Simone Weil avers that one’s power cannot be created within oneself, since this virtue cannot be attained by one’s own “viewpoint blurred by the evil”. Humbleness is thus what characterizes a good artistic accomplishment, by virtue of which a proper meditation of the world is achieved.

Oh Wonbae oscillates between the two viewpoints, precipitous look-down and precipitous look-up of the world. Surveying interchangeably the disease of the world and the madhouse as Reality with a Goethean bird’s eye view and a meditative look-up, Oh translates meticulously the tension between the ideal and the existential.

Earth informs the spirit

Born at Youdong Junggu Incheon, Oh Wobae started his painting career in the Painting Club at Songdo Middle School. In his seventy, the age of great freedom from petty desire(從心), he came back to Incheon as the first laureate of the exhibition, this Year’s Artist in Incheon. Earth informs the spirit. The spirit shall make the earth solid. I cross my fingers that his Exhibition make an epoch-making event in the history of Korean as well as Incheon art.

—
1 ‘Dialogues with the Author’ Oh Wonbae,
Catalogue. 2017. 11. 2~12. 23 OCI Museum p. 10.













무제, 2023, 천 위에 혼합재료, 520×540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cloth, 520×540cm





무제, 2023, 천 위에 혼합재료, 480×600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cloth, 480×600cm





무제, 2023, 천 위에 혼합재료, 520×540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cloth, 520×540cm





무제, 2023, 천 위에 혼합재료, 520×540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cloth, 520×540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106×76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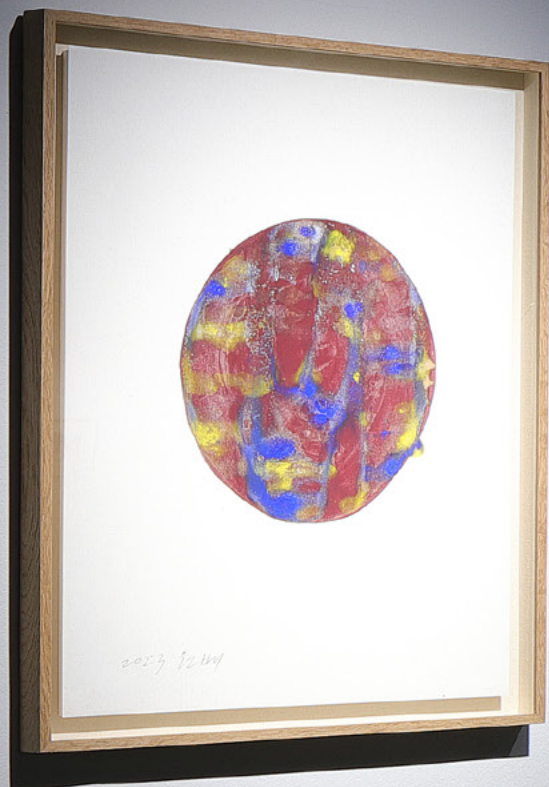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106×76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106×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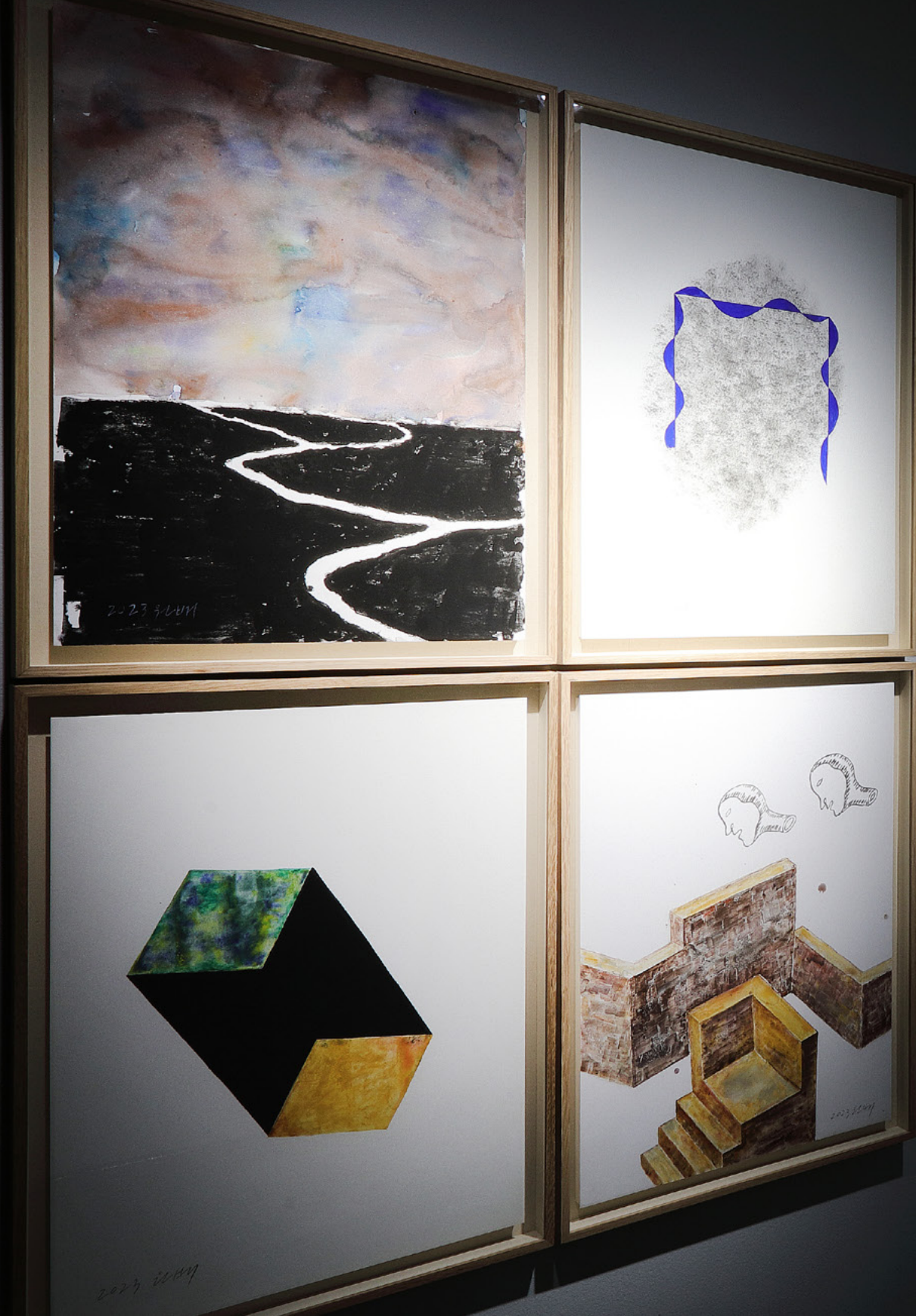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아크릴릭, 106×76cm
 Untitled, 2023, Acrylic on paper, 106×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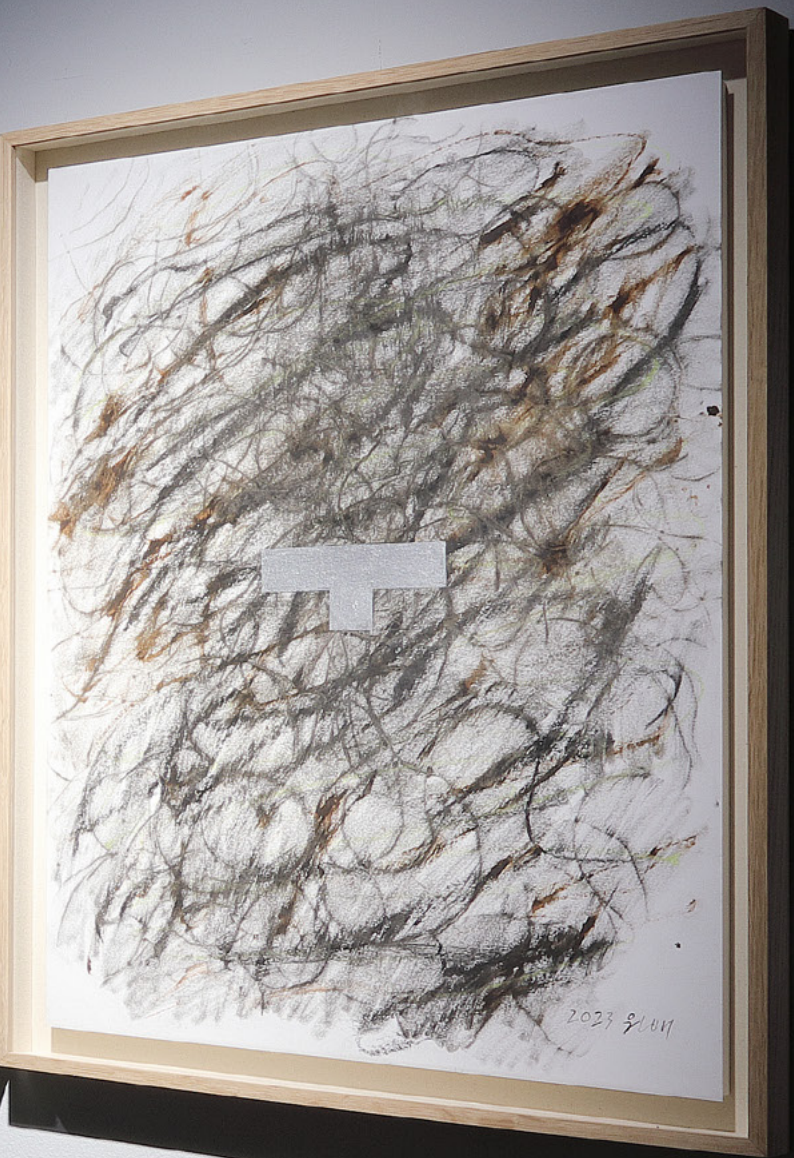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78.8×54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78.8×54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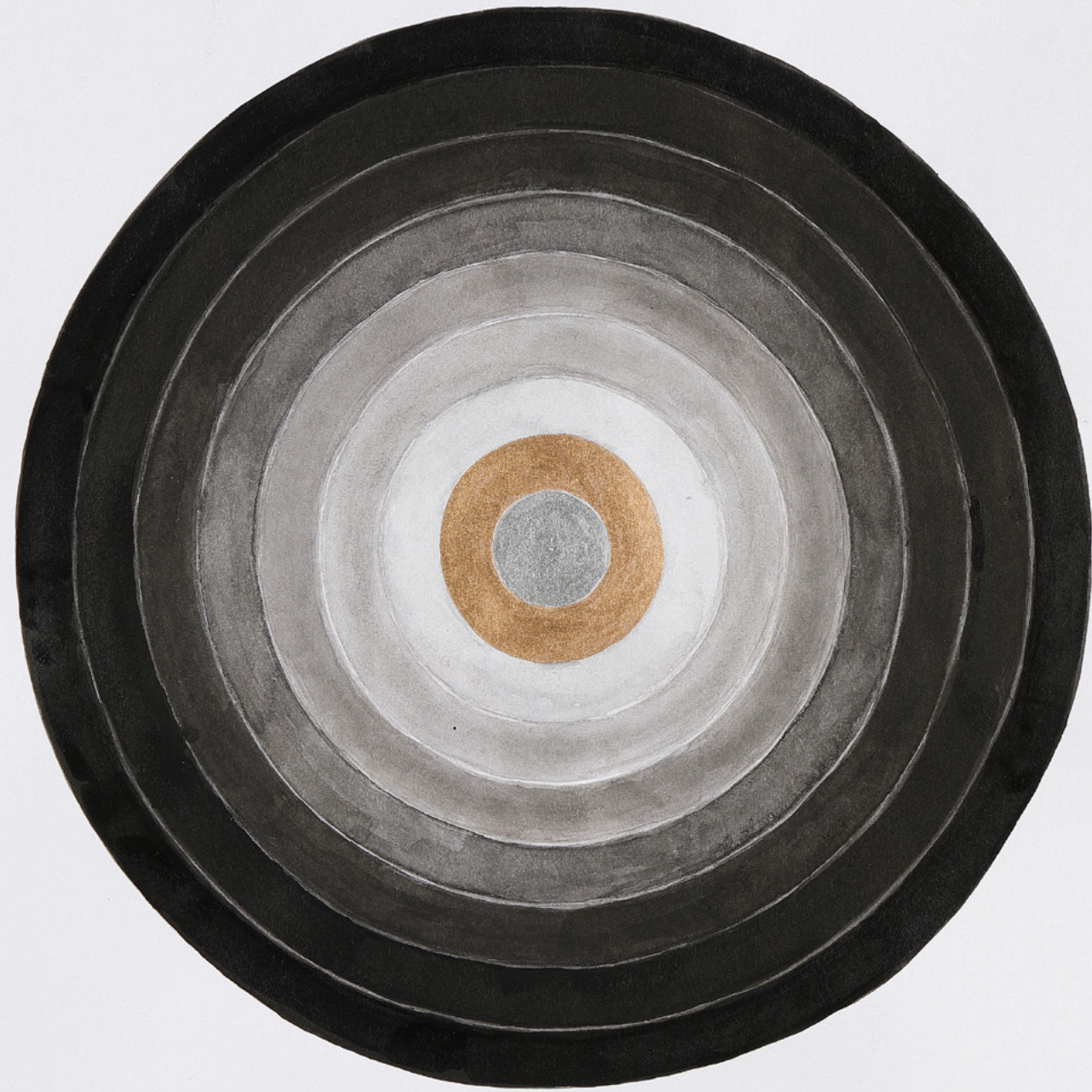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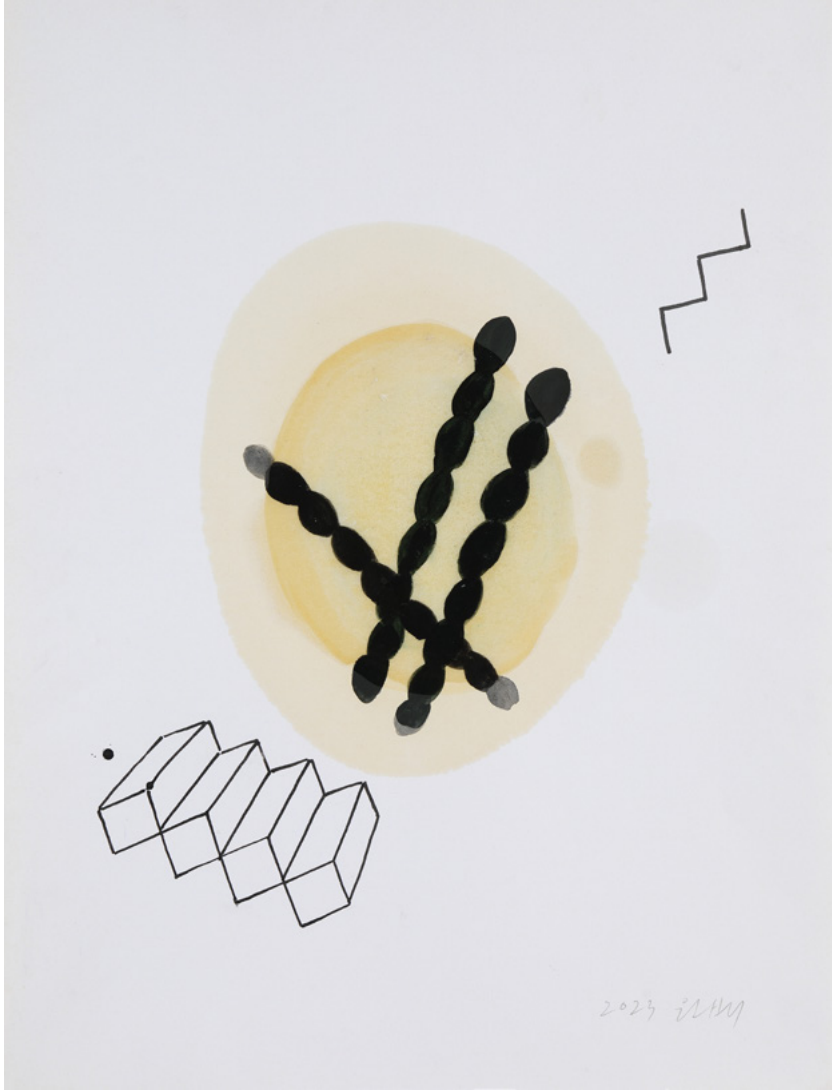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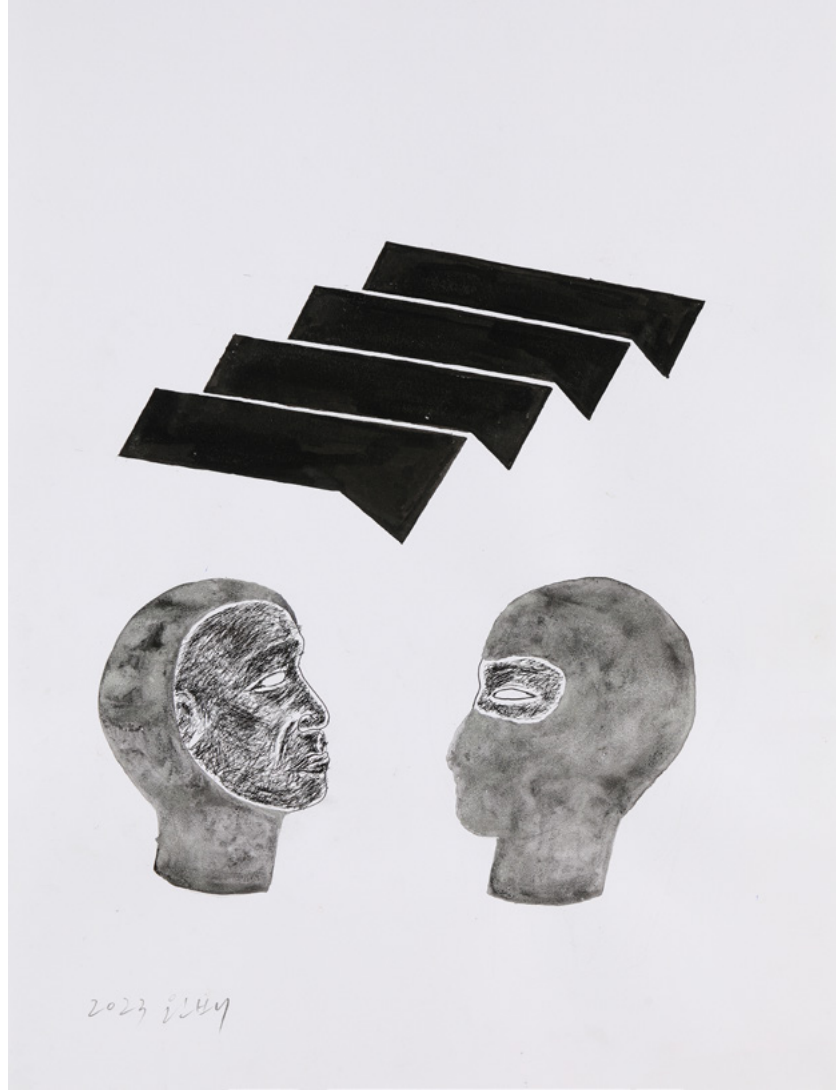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2023 i/hy



2023 i/hy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무제, 2023, 종이 위에 혼합재료, 64.5×47cm
 Untitled, 2023, Mixed media on paper, 64.5×47cm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풍경, 1972, 종이 위에 펜, 18.5×26.5cm
View from Freedom Park, 1972,
pen on paper, 18.5×26.5cm



인천항과 올림포스 호텔, 1972, 종이 위에 펜, 18.5×26.5cm
Incheon port and olympos hotel, 1972,
pen on paper, 18.5×26.5cm



해광사에서 바라본 풍경, 1971, 종이 위에 연필, 18.5×26.5cm
View from Haegwangsa(Temple), 1971,
pencil on paper, 18.5×26.5cm



청관, 1971, 종이 위에 연필, 18.5×26.5cm
CheongGwan(an old name of Incheon Chinatown), 1971,
pencil on paper, 18.5×26.5cm



인천항, 1977, 종이 위에 펜, 25.5×34.5cm
Incheon port, 1977, pen on paper, 25.5×34.5cm

인천항, 1977, 종이 위에 펜, 25.5×34.5cm
Incheon port, 1977, pen on paper, 25.5×34.5cm

인천항, 1977, 종이 위에 펜, 25.5×34.5cm
Incheon port, 1977, pen on paper, 25.5×34.5cm

전등사 동문, 1974, 종이 위에 펜, 25.5×34.5cm
East gate of Jeondeungsa(Temple), 1974, pen on paper, 25.5×34.5cm

연안부두, 1973, 종이 위에 펜, 25.5×34.5cm
Yeonan Pier, 1973, pen on paper, 25.5×34.5cm

월미도 풍경, 1973, 종이 위에 유화, 25.5×34.5cm
Landscape of wolmi island, 1973, oil on paper, 25.5×34.5cm

인천항, 1973, 종이 위에 펜, 25.5×34.5cm
Incheon port, 1973, pen on paper, 25.5×34.5cm



2000년대 드로잉
Drawing books, 2000s



1970년대 드로잉
Drawing books, 1970s



좌) 1980년대 유학시절 드로잉
(Left) Drawing books, 1980s

(우) 1990년대 드로잉
(Right) Drawing books, 1990s



오 원 배

1953	인천 출생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파리국립미술학교 수료	
개인전		
2023	아트플랫폼, 인천	
2023	아트스페이스 카고, 영종	
2021	예술마루 장도 전시장, 여수	
2019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17	OCI미술관, 서울	
2016	갤러리밈, 서울	
2016	스페이스문, 인천	
2014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12	금호미술관, 서울	
2008	리씨갤러리, 서울	
2008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2007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03	금호미술관, 서울	
2002	씨떼 데자르, 파리	
2001	예술의전당, 서울	
1999	문화예술회관, 인천	
1998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1993	올해의 젊은 작가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1992	갤러리 서미, 서울	
1989	이달의 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6	동덕미술관, 서울	
단체전		
2023	이미지로 건너오는 시들, 한국근대문학관, 인천	
2023	한국전쟁 정전70주년 기념전, 연강갤러리, 연천	
2022	인공윤리-인간의 길에 다시 서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울	
2022	기억의 장면들, 두남재아트센터, 서울	
2022	긴 호흡-다섯 작가의 드로잉, 토포하우스, 서울	
2022	그림의 탄생, 예술의전당,서울	
2021	선-있다.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2021	재난과 치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1	경주 국제아트페스타, 예술의전당, 경주	
2021	시공의 인연을 보다,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21-2018	인간전, 정문규미술관, 안산	
2021	밤하늘에 별을 수놓는 거룩한 생각들, 갤러리노마드, 여수	
2020-2018	ACAF, 예술의전당, 서울	
2020-2018	KIAF, 코엑스, 서울	
2020	수평적 세계를 깨우는 방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9	시몬의 친구들, 갤러리시몬, 서울	

2019	소화(素畵)_한국근현대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2019-2008	초대전시, 전등사 정족산 사고전시장, 전등사, 강화
2018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여수
2018	도시, 비움의 시작, 포항시립미술관,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2018	국제 누드작가전, 정문규미술관, 안산
2018	이중섭미술상 30주년 수상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7	균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7	코리아 투모로우 2017, 성곡미술관, 서울
2017	한국의 진경-독도와 울릉도, 예술의전당, 서울
2017	목인석심,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17	감각의 언어, 몸, 오승우 미술관, 무안
2017	트라이앵글, 아트사이드, 서울
2017	Your Hand, My Heart, 갤러리시몬, 서울
2017	수목 드로잉전, 토포하우스, 서울
2017-1988	앙가주망전, 예술의 당, 모란미술관, 미술회관, 빛들갤러리, 서울
2016	행복의 나라,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연과 연, 필갤러리, 서울
2015	공존,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5	무제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5	5인5색, 장육진 가옥, 용인
2014	느린 걸음과 난상토론, 한원미술관, 서울
2014	세계문자심포지아,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4	한국, 방글라데시 교류전, 목금토 갤러리, 서울
2014	미술관 이미지,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4	한국-유럽 현대미술 동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2014	현대작가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광주시립미술관
2014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한국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부산문화회관
2014	고원의 기억과 힐링, 삼탄아트마인, 정선
2014	사유로서의 형식: 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2013	서울관 개관 특별전 ‘자이트가이스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3	3막5장, 갤러리 시몬, 서울
2013	인천爰, 선광미술관, 인천
2013	백령도 525600시간과의 인터뷰, 아트플랫폼, 인천
2013	장면의 재구성 #2_NEW SCENES, 서울시립미술관
2013	구.체.경. 힐링 그라운드, 소마미술관, 서울
2013	뉴 드로잉, 갤러리 비원, 서울
2013	객주 그림전, 서울 도서관
2013-2004	아시아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중국 광주미술관, 싱가포르미술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미술관, 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2012	1980년 인간전 그 이후 ‘오늘의 동향’, 정문규 미술관, 안산
2012	법고창신-경주에서의 대화, 경주 예술의전당, 경주
2012	친교: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2011	서울국제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2011	이미지의 수사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회화의 수집, 닥터박 갤러리, 양평

2011	사유의 방, OCI미술관, 서울		양코르 와트, 거제문화예술회관
2011	오늘의 아시아 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05	웰컴 투 강원랜드, 모란미술관, 서울
2011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2005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11	관계, 이중성을 횡단하다, 베이징 아트사이드, 베이징	2005	우리시대를 이끈 미술가 30인, 서울옥션센터, 서울
2010	한국드로잉30년, 소마미술관, 서울	2004	다다 5.2, 의제미술관, 광주
2010	젊은 모색 30주년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4	아시아 국제미술전, 후쿠오카시립미술관, 후쿠오카
2010	노란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2004	남도문화음식기획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21 & THEIR TIMES, 금호미술관, 서울	2004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 불일미술관, 서울
2010	이상, 그 이상을 그리다, 부남미술관, 서울	2003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가톨릭 아트 갤러리, 서울
2010	현대미술 110인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3	박수근을 기리는 작가들, 박수근 미술관, 양구
2010	선화랑 개관기념전, 선화랑, 서울	2003	한국의 누드미학 2003,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0	한국현대미술전, Handforth Gallery, 시애틀	2003	한국현대미술의 다양성, 가일미술관, 가평
2010	EAGLE EYE Drawing, 팔레드서울, 서울	2003	교류 2003: 한국/하와이,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하와이
2010	Works on Paper, 리씨갤러리, 서울	2003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0	우리는 거제로 간다,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2003-1994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 예술의전당, 서울
2010	갤러리 아트DY 개관 기념전, 갤러리 아트DY, 용인	2002	한국 현대미술의 전망과 기대, 공평 아트센터, 서울
2009	책의 공화국, 갤러리 한길, 파주	2002	깨달음과 아름다움,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9	7080 청춘예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1	사불산 윤필암전, 학교재, 서울
2009	그 날의 조우, The K 갤러리, 서울	2001	한국 미술 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어머니 그리고 엄마, 미술관 가는 길, 서울	2001	한국 현대미술 회화, 광동시립미술관, 중국
2009	‘畫香春信’ 한국현대회화 100인전, 우림화랑, 서울	2000	상해, 인천 미술 교류전, 상하이 시립미술관, 상하이
2009	국제 물-아트 쇼, 부남미술관, 서울	2000	한미 현대미술작가전, 폭스갤러리, 펜실베니아
2009	3인전, 리씨갤러리, 서울	2000	기초, 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2008	한불 작가전 ‘Asiana Meets Paris’, 아시아나 라운지, 인천	2000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광주
2008	중견작가 20인 초대전, 노암갤러리, 인천	1999	단원 미술초대전, 안산 올림픽 기념관, 안산
2008	대다 Touch, 내촌창고, 홍천	1999	이중섭 미술상 역대 수상작가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08	드로잉 소장품전, 소마미술관, 서울	1999	감성과 자유를 그리워하다, 프랑스문화원, 서울
2008	문학, 그림으로 만나는 행복, 부남미술관, 서울	1999	나주 국제 미술제, 동신대학교, 나주
2008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8	황해미술제, 인천 문화예술회관, 인천
2008	양평환경미술제, 닥터박 갤러리, 양평	1998	인천 현대미술 초대전, 인천 문화예술회관, 인천
2008-1997	황해미술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1998	회화 속의 몸, 한림미술관, 서울
2007	The Fall Trip, 갤러리 현, 부산	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7	굿모닝 베트남, 굿모닝 코리아, 국제교류재단 갤러리, 서울	1998	서울미술대전, 시립미술관, 서울
2007	3인전, 리씨갤러리, 서울	1997	황해의 역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07	몸 3인전, 할 갤러리, 태백	1997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 성곡미술관, 서울
2007	한국미술의 위상, 한국미술센터, 서울	1997	서양화100인 초대전, 서울갤러리, 서울
2007	Life Story, 아소갤러리, 서울	1996	도시와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6	한국현대미술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6	열린미술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6	아시아현대미술전, 싱가포르아트센터, 싱가포르	1996-1984	살롱 마른 라 발레, 마른 라 발레, 파리
2006	인천여성비엔날레-조율, 인천문화예술회관	1995	오늘의 한국미술, 공평아트센터, 서울
2006	무소의 뿔처럼 가라, 미술관 가는길, 서울	1995	현대미술 가깝게 이해하기,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6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성남아트센터, 성남	1995	한국지성의 표상, 공평아트센터, 서울
2006	큰길로 걸어 나온 사람, 여행-동행, 인천문화예술관, 인천	1995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작업, 조선회랑, 서울
2005	갑오세, 갑오세,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1995	한국미술'95 질량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5	경기아트페어, 한국현대미술특별전, 수원	1995	한국현대미술전, 북경국립미술관, 북경
2005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1994	한국 현대미술 흐름, 갤러리인사, 서울
2005	한국모더니즘 시선의 교차와 혼성, 금호미술관, 서울	1994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5	From Now, 갤러리 하미강, 서울	1994	오늘을 보는 그림, 예루갤러리, 전주
2005	경기아트페어, 수원전시미술관, 수원	1994	사각의 봄, 갤러리 사각, 서울
2005	시간_미스터리, 칸카야시립현대미술관, 이스탄불,	1994	한국종교인전, 예술의전당, 서울

1994	서울 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2	현대미술의 조명, 몽마르트화랑, 인천
1993	인물화 삶의 표정, 현대아트갤러리, 서울	1981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비무장지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81-1980	현대미술의 상황전, 정우화랑, 인천
1992	현대미술 20인의 표상, 갤러리 이큰, 서울	1981-1979	양데팡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2	오늘의 삶-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1980	한국미술대상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2	한국현대미술-1992 표정, 새갤러리, 서울	1980	표상 4313, 미술회관, 서울
1992	전통의 맥-한국성 모색, 서남미술관, 서울		
1992	실크로드 미술 기행, 동아미술관, 샘터화랑, 서울		
1992	90년대 우리 미술의 단면, 학교재, 서울		수상 및 선정
1992	한국 현대미술-1992 표정, 금호미술관, 서울		
1992	한국현대미술 21, 갤러리 21, 서울	2023	제1회 인천미술-올해의 작가
1991	세기말 인상, 신세계미술관, 서울	1997	제9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1991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선재미술관, 경주	1992	올해의 젊은 작가상
1991	까뉴 국제회화제, 까뉴	1985	프랑스 예술원 회화 3등상
1991	개성과 표현, 샘터화랑, 서울	1984	파리국립미술학교 회화 1등상
1991	인간- 7인의 시선, 아미갤러리, 서울		
1991-1986	살롱 드 메, 그랑 팔레, 파리		
1990	90년대 작가전, 시립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1990	한국미술-오늘의 상황, 예술의전당, 서울		
1990	토아트 스페이스90전, 토갤러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1989	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 동승아트센터, 서울		소마미술관, 금호미술관, OCI미술관,
1989	제3회 아시아현대미술전, 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 지하철 문화예술회관역,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문화성, 파리국립미술학교, 후쿠오카시립미술관,
1989	인간-7인의 시각, 나우갤러리, 서울		한국수력원자력, 경주통일전, 동국대학교,
1989	인간-생각-오늘, 온다라미술관, 전주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등사, 해인사, 정토사, 만해마을
1989	형상미술전, 금호미술관, 서울		조선일보사, 법무법인태평양,
1989-1988	3.2 근작전, 힐튼화랑, 그로리치화랑, 서울		
1988	한국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 한강미술관, 서울	1986-2018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1988	모더니즘 이후, 현대아트갤러리, 서울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988	형상과 표현의 언어, 토갤러리, 서울		
1988-1986	인간전, 동덕미술관, 그로리치화랑, 토갤러리, 서울		
1987	'80년대 한국미술정황,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1987	87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6	아르코스모 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 아르코스모 미술관, 서울		
1986	크리마 '86, 파리		
1986	표현의 새로움, 삼청화랑, 서울		
1985	한국 현대미술전, 톨르즈		
1985	형상 10, 코펜하겐, 덴마크		
1985	살롱 데 자티스트 프랑세즈, 그랑 팔레, 파리		
1985	아틀리에 양켈, 베르나노스, 파리		
1985	보자르 '85, 파리국립미술학교, 파리		
198	살롱 데 레알리떼 누벨, 그랑 팔레, 파리		
1985-1984	살롱 드 라 휘규라시옹 크리티크, 그랑 팔레, 파리		
1984	살롱 '84, 그랑 팔레, 파리		
1984	콩프렐타시옹, 벨 빌, 파리		
1984	팽티유, 엑스프레시옹, 그랑 팔레, 파리		
1984-1983	살롱 도톤느, 그랑 팔레, 파리		
1983	살롱 데 장데팡당, 그랑 팔레, 파리		
1982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Oh Won Bae

1953 Born in Incheon
1972-1979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B.F.A. & M.F.A.
1982-1985 Studied at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Solo Exhibitions

2023 Incheon Art Platform(IAP), Incheon
2023 Artspace Cargo, Yeongjong
2021 Yeulmaru, Jangdo Space, Yeosu
2019 Artside Gallery, Seoul
2017 OCI Museum of Art, Seoul
2016 Space Moon, Incheon
2016 GalleryMEME, Seoul
2014 Artside Gallery, Seoul
2012 Kumho Museum of Art, Seoul
2008 Lee C Gallery, Seoul
2008 Korea Art Center, Busan
2007 Artside Gallery, Seoul
2003 Kumho Museum of Art, Seoul
2002 Cite des Arts, Paris
2001 Seoul Arts Center, Seoul
1999 Incheon Culture & Art Center, Incheon
1998 The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1993 The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1992 Gallery Seomi, Seoul
1989 An Artist's Exhibition of the Mont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86 Dongduk Art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2023 Poems Crossing with the Images, The Museum of Modern Literature, Incheon
2023 The 7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Armistice of the Korean War, Yeongang Gallery, Yeoncheon
2022 A.I. Ethics-Back on the Human Way,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Seoul
2022 Scenes from the Memory, Doonamjae Art Center, Seoul
2022 Long Breath-Drawings of 5 Artists, Topohaus, Seoul
2022 The Birth of Art, Seoul Arts Center, Seoul
2021 Lines-Connecting, Tanheo Memorial Buddhist Museum, Seoul
2021 Catastrophe and Recover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1 Gyeongju International Art Festa, Gyeongju Arts Center, Gyeongju
2021 Seeing the Connection between Time and Space, Gallery Lamer, Seoul
2021-2018 Human, Chungmunkyu Museum, Ansan

2021 Holy Thoughts Embroidering Stars in the Night Sky, Gallery Nomad, Yeosu
2020-2018 ACAF,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20-2018 KIAF, COEX, Seoul
2020 The Way of Embracing the Horizontal World, Incheon Art Platform(IAP), Incheon
2019 The 25th Anniversary Simon's Friends, Gallery Simon, Seoul
2019 DRAWING_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Drawings, SOMA Museum of Art, Seoul
2019-2008 Invitational Exhibitions, Jeongjoksan Historical Archives, Jeondeungsa, Ganghwa
2018 ici maintenant encore,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EXPO Exhibition Hall, Yeosu
2018 City, The Beginning of Emptying,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ungsan Art Hall, Changwon
2018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Lee Joong Sup Art Award,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2018 International Nude Painting Art Fair, Chungmunkyu Museum, Ansan
2017 Crack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7 Korea Tomorrow 2017, Sungkok Art Museum, Seoul
2017 The Real Landscape of Korea- Dokdo and Ulleungdo, Seoul Arts Center, Seoul
2017 Unflappable, All Me Art Space, Seoul
2017 The Language of the Senses, Body,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2017 Triangle, Artside Gallery, Seoul
2017 Your Hand, My Heart, Gallery Simon, Seoul
2017 Ink Drawings, Topohaus, Seoul
2017-1988 Engagement, Seoul Arts Center, Moran Museum of Art, Fine Art Center, Bitdul Gallery, Gallery 21, Seoul
2016 Land of Happiness,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Ties and Connection, Fill Gallery, Seoul
2015 Coexistence,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2015 Untitle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5 5 People 5 Colors, Chang Uochin House, Yongin
2014 Slow Pace and Fruitful Discussion, Hanwon Museum of Art, Seoul
2014 World Script Symposia, Sejong Center, Seoul
2014 Korea and Bangladesh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Mokkumto Gallery, Changwon
2014 Museum Image, Dongduk Art Gallery, Seoul
2014 Contemporary Art of Korea-Europe, Moonshin Art Museumt, Changwon
2014 Contemporary Artists, Dongduk Art Gallery, Seoul
2014 Dweet Dew, Special Project celebrating the 20th of Gwangju Biennale, Gwangju Museumof Art, Gwangju

2014	History of Introducing Korean Contemporary Art to Biennales, Special Show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Busan Biennale Engagement, Busan Cultural Center, Busan	2010	Sun Gallery, Seoul
2014	Memory and Healing in Plateau, Samtan Art Mine, Jeongseon	2010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Handforth Gallery, Seattle, U.S.A.
2014	Form as Meditation: Rediscovery of Drawing, Museum San, Wonju	2010	EAGLE EYE Drawing, Gallery Palais de Seoul, Seoul
2013	Zeitgeist,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0	Works on Paper, Lee C Gallery, Seoul
2013	Act 3 Scene 5, Gallery Simon, Seoul	2010	We Are Going to Geoje, Geoje Arts Center, Geoje
2013	IncheonLove, Sunkwang Museum, Incheon	2010	Opening Anniversary Exhibition of Gallery ArtDY, Gallery ArtDY, Seoul
2013	Interview with Baengnyeong Island 525600 Hours, Incheon Art Platform(IAP), Incheon	2009	Book Republic, Gallery Hangil, Paju
2013	Restructuring of Scenes #2 : NEW SCENE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9	7080 Splendor of Youth,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2013	Sphere·Body·Landscape. Healing Ground, SOMA Museum of Art, Seoul	2009	Encounter of the Day, The K Gallery, Seoul
2013	New Drawing, Gallery Beone, Seoul	2009	Mother and Mom, Gomuseum, Seoul
2013	Peddlers' Inn Paintings, Seoul Metropolitan Library, Seoul	2009	Scent of Flower & Spring' 100 Korean Contemporary Artists, Urim Gallery, Seoul
2013-2004	Asian Contemporary Art Fair, Seoul Arts Center	2009	The International Mul-Art Show, Busan Art Center, Busan
	Guangzhou Art Museum, The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Jakarta, Singapore Art Museum, Fukuoka Museum of Art, Mongoli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8	3 Artists, Lee C Gallery, Seoul
2012	Art Movement Today After the Human in 1980s, Chungmunkyu Museum, Ansan	2008	Korea-France Artists Exhibition "Asiana Meets Paris", Asiana Lounge, Incheon
2012	Paintings Dedicated to Baik Suk Literature, Tongin Gallery, Seoul	2008	Invitational Exhibition for Medium Standing 20 Artists, NOAM Gallery, Incheon
2012	Art Gyeongju Special Exhibition 2012, Gyeongju Arts Center, Gyeongju	2008	Daeda Touch, Naecheon Warehouse, Hongcheon
2012	Friendship: Mentor Mentee, Hanwon Art Museum, Seoul	2008	Exhibition of Drawing Collections, SOMA Museum of Art, Seoul
2011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2008	Happiness with Literature and Painting, Bunam Museum, Seoul
2011	Rhetoric of the Image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8	Seoul Fine Arts Grand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1	Gather of Painting, Dr. Park Gallery, Yangpyeong	2008	Yangpyeong Environmental Art Festival, Dr. Park Gallery, Yangpyeong
2011	The Room of Meditation, OCI Museum of Art, Seoul	2008-1998	The Yellow Sea Art Festival,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2011	Asian Art Today,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2007	The Fall Trip, Gallery Hyun, Busan
2011	Life and Climate, Daegu Art Museum, Daegu	2007	Good morning Vietnam, Good morning Korea, Korea Foundation, Seoul
2011	Relations, Crossing the Duplicity, Artside Gallery Beijing, Beijing	2007	3 Artists Exhibition, Lee C Gallery, Seoul
2010	Korean Avant-Garde Drawing, 1970-2000, SOMA Museum of Art, Seoul	2007	Body-3 Artists Exhibition, Hal Gallery, Taebaek
2010	The 30th Anniversary of the Young Korean Artist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7	Situa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Korea Art Center, Seoul
2010	Cross Over the Yellow Line, Kyunghyang Gallery, Seoul	2007	Life Story, Ahso Gallery, Seoul
2010	21 & THEIR TIMES, Kumho Museum of Art, Seoul	2006	Korea Contemporary Arts 100 Year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0	Lee Sang, Drawing the Beyond, Bunam Museum of Art, Seoul	2006	Asia Contemporary Arts, Singapore Arts Center, Singapore
2010	Invitational Exhibition of 110 Contemporary Artists, Sejong Center, Seoul	2006	Incheon Women Biennale-Tune, Incheon Multiculture & Arts Center, Incheon
2010	Opening Anniversary Exhibition of Sun Gallery,	2006	Go like the Horn of the Rhinoceros, June Gallery, Seoul
		2006	Small is Beautiful, Sungrnam Arts Center, Sungrnam
		2006	Human Who is Walking Toward the Big Road, Travel-Company, Incheon Multiculture & Arts Center, Incheon
		2005	Gabosae, Gabosae, Dongduk Art Gallery, Seoul
		2005	Gyeonggi Art Fair, Korea Contemporary Special Show, Suwon Arts Center, Suwon
		2005	Korea Galleries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2005	Korea Modernism, Crossover and Hybrid of Viewpoint, Kumho Museum of Art, Seoul	1998	The Body in Painting, Han-lim Art Gallery, Daejeon
2005	From Now, Gallery Hamigang, Seoul	1998	The Exhibition of Commemoration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Seoul Arts Center, Seoul
2005	Gyeonggi Art Fair, Gyeonggi Arts Center, Suwon		
2005	Time-Mystery, Cankaya Municipality Contemporary Arts, Istanbul, Angkor Wat, Geoje Arts Center, Geoje	1998	Seoul Art Festiva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5	Welcom to Gangwon Land, Moran Museum, Seoul	1997	The History of Yellow Sea,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2005	The Open Window to the 21st Century Incheon Arts Festival, Incheon Multiculture & Arts Center, Incheon	1997	Exhibition of Today's View Points, Our Cultural Heritage, Sungkok Art Museum, Seoul
2005	30 Leaders of Our Era, Seoul Auction Center, Seoul	1997	Exhibition of 100 Painters of Western Paintings, Seoul Gallery, Seoul
2004	DaDa 5.2, Uijae Museum of Korean Art, Gwangju		
2004	Asia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Fukuoka National Museum, Fukuoka, Japan	1996	Cities and Art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4	South Foods Festival, Insa Arts Canter, Seoul	1997	Open Art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2004	The Meeting of Catholic & Buddhist, Gallery Bulihl, Seoul	1996-1984	Salon Regionale d'Art Plastique, Marne-la-Vallée, Paris
2003	The Meeting of Buddhist and Catholic Artists, Catholic Art Gallery, Seoul	1995	Today's Korean Fine Arts, Gongpyeong Art Center, Seoul
2003	The Artists Longing for Park Soo Keun, Park Soo Keun Museum, Yangku	1995	Friendly Understanding of the Modern Art,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2003	Korean Nude Aesthetics 2003, Sejong Center, Seoul	1995	Representation of Korean Intellectus, Gongpyeong Art Center, Seoul
2003	Diversity of Korean Contemporary Art, Gail Art Museum, Gapyeong	1995	Exhibition of Demilitarized Zone Arts and Culture Movements, Chosun Gallery, Seoul
2003	Exchange 2003 : Korea/Hawaii, Hawaii East-West Center, Hawaii, U.S.A.	1995	'95 Korean Art Textur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3	Seoul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5	Exhibi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ts, The Beijing National Museum of Art, Beijing, China
2003-1994	Art Exhibition of Korean Religious People, Seoul Arts Center, Seoul	1994	Exhibition of Korean Modern Arts Trend, Gallery Insa, Seoul
2002	The Prospect and Expecta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Gongpyeong Art Center, Seoul	1994	The 100th Donghak Farmers Revolution Anniversary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2002	Consciousness and Beauty, Gana Art Center, Seoul	1994	Exhibition of Arts Seeing Today, Yeru Gallery, Jeonju
2001	The Exhibition of Yoon-Pil Temple in the Mountain of Sabool, Hakgoje Gallery, Seoul	1994	Spring at Four Edges, Gallery Sakak, Seoul
2001	Korean Art 2021, Reinstatement of Paint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4	Art Exhibition of Korean Religious People, Seoul Arts Center, Seoul
2001	Painting of Korean Contemporary Art, Gwangdong Museum, China	1994	Seoul International Modern Arts Exhibiti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0	The Exchanged Exhibition of Shanghai, Incheon Art, Shanghai Museum of Art, Shanghai, China	1993	Exhibition of Figure Painting, Expression of Life, Hyundai Arts Gallery, Seoul
2000	Korea_U.S.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Fox Gallery, Pennsylvania, U.S.A.	1993	Exhibition of Demilitarized Zone Arts and Culture Movement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0	Basis, Prospect, Seoul Museum, Seoul	1992	Exhibition of Twenty Artists' Image in Contemporary Art, Icon Gallery, Seoul
2000	Gwangju Biennal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1992	Today's Life - Today's Art, Kumho Museum of Art, Seoul
1999	Dan-Won Art Exhibition, Ansan Olympic Commemoration Center, Ansan	1992	Seoul Korean Contemporary Art 1992's Expression, Sae Gallery, Seoul
1999	The Exhibition of the Winning Artist of Lee Joong Sub Art Prize,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1992	Vein of Tradition-Group Exhibition of Korea, Seonam Gallery, Seoul
1999	Pine for the Sensibility and Freedom, Centre Culturel Coréen en France, Seoul	1992	Art Journey of the Silk Road, Dong-A Museum of Art, Wellside Gallery, Seoul
1999	Naju International Art Festival, Dongshin University, Naju	1992	Facet of Korean Art in the 1990s, Hakgoje Gallery, Seoul
1998	Incheo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1992	Korea Contemporary Art-Expression of 1992, Kumho Museum of Art, Seoul
		1992	Korea Contemporary Art 21, Gallery 21, Seoul
		1991	The End-of-Century Impressions,

2023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오원배 개인전 «부유/현실/기록»

2023.12.07. – 2024.03.03.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전시총괄 이영리
전시기획 이태현
진행보조 김수민
그래픽디자인 김보배, 곽은정
전시조성 진영공영
운송 및 설치 마이컴퍼니글로벌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손동혁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전시 운영위원회 1기 (2023 – 2024)
전 경희대학교 교수 이태호
국민대학교 교수 최태만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실장 이채영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
작가 홍선웅

2023 심의위원회
중앙대학교 교수 김영호
서울대학교 교수 심상용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조은정

The Incheon Artist of the Year 2023
Oh Wonbae’s Solo Exhibition «Floating/Reality/Documents»

2023.12.07. – 2024.03.03.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B)

Directed by
Young-ri Lee
Curated by
Taehyun Lee
Exhibition Assistant
Soomin Kim
Graphic Design
Bobae Kim, Eunjung Kwak
Space Construction
Jinyoung Architects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My Company Global

Host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Organized by IFAC-IAP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Incheon Art Platform
IFAC, President
Jonggu Lee
IFAC, Division Head of Cultural Facilities
Donghyek Son
IAP, Team Leader
Young-ri Lee

Committee for Exhibition Operation (2023 – 2024)
Former Professor of Kyung Hee University
Taeho Lee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Tae-man Choi
Chief Curator of Nam June Paik Art Center
Chaeyoung Lee
Former President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Byungkuk Choi
Artist
Seon-wung Hong

2023 Selection Committee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Yongho Kim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yong Sim
Visiting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Eunjung Cho

2023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오원배 개인전 《부유/현실/기록》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편집인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손동혁

발행일
2023년 12월

ISBN
978-89-92678-89-6

편집
이영리, 이태현

번역
황훈성

사진
모기 아트

인쇄
한결

The Incheon Artist of the Year 2023
Oh Wonbae's Solo Exhibition «Floating/Reality/Documents»

Publication
Incheon Art Platform

Publisher
Jonggu Lee, IFAC, President

Director
Donghyek Son, IFAC, Division Head of Cultural Facilities

Published on
December, 2023

ISBN
978-89-92678-89-6

Edited by
Young-ri Lee, Taehyun Lee

Translation
Hoon-sung Hwang

Photography
Mogi Art

Printing
Hangyeol

© 인천아트플랫폼, 2023.
수록된 글과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ncheon Art Platform, 202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orm the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이 도록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This catalogue is made of FSC certified paper and recyclable materials.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해안동 1가)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Tel. +82. 32. 760. 1000
Fax. +82. 32. 760. 1010
www.inartplatform.kr

facebook @inartplatform
Instagram @incheonartplatform
Youtube @incheonartplatform

